복지
영성
낙수

복지영성 낙수

성경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성찰하며 영성을 다듬어 갑니다.

2021년 9월 25일

원고를 홈페이지(welfare.or.kr)에 흔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1. 구제와 구원 ····· 3
2. 교회 사회사업 ····· 9
3. 강점 ····· 11
4. 위험한 수단 ····· 16
5. 사회사업 공부 ····· 19
6. 인문학 ····· 20
7. 안식일 ····· 22
8. 동역 ····· 25
9. 동료 ····· 31
10. 어른을 책망할 때 ····· 35
11. 아이를 책망할 때 ····· 39
12. 남이 욕할 때 ····· 40
13. 역설 ····· 43

소원 ····· 44
유언 ····· 44

인생 ····· 45
구원에 관한 믿음 ····· 59
인생칼럼 ····· 88

1. 구제와 구원

1) 구제 대상자의 구원

영혼 구원에 쓰이지 않거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가치가 없을까요? 영혼 구원이나 전도를 위해 구제를 수단화해도 될까요?

구제 대상자의 영혼 구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구제가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와 영혼 구원은 별개입니다. 구제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 수단으로 하는 구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이나 예배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구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도들의 행적, 어느 모로 보나 구제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1)]

---

1)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을 도우심도 대개는 그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맹인을 보게 하실 때에도(마20:31~34),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막1:40~43),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11:33~35)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눅7:11~17) '불쌍히 여겨' 그리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구제와 전도

행9:36~42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1]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

1) 행9:32~35 그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2) 구제하는 사람의 구원

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1)]

갈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롬4:4~5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

1)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끝 부분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

약2:14~26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쓸 것을 주어 평안하게 따뜻하게 배부르게 한 '선행' 때문일까요? 정직하거나 깨끗한 '윤리적 행위' 때문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과 이웃, 영생과 자비

눅10:25~37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3)]

---

1)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2)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살리신 예수님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3)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자비로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일까요?

아래 말씀들도 마음에 담아 둡니다.

마25:31~4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46 (요약)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라 하시되 그들은 작은 자가 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 교회 사회사업

막7:9~13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것을 교회에 바치게 함으로써, 교회 일을 위해 이웃 사랑을 저버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마5:13~14) 그 빛을 교회라는 말 아래 두고 그 소금을 교회라는 항아리에 담아 두니 세상은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 갑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만 빛나고 맛납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는데 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잃어 갑니다.

교인을 동원하여 교회의 ‘복지사업’을 이루기보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교인의 삶’을 세우면 좋겠습니다.[1)]

---

1) 대조 – 행4:33~35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 롬15:25~26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후 8~9장)

시험에 들고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조심! 행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 행6:1 구제와 원망, 고후8:20~21 구제 연보에 대한 비방 우려 – 선한 일도 조심!

※ 교회의 사랑 구제 후원 봉사

흔히 교회나 기독교인의 도움은 말씀에 대한 순종, 믿는 사람의 도리, 이웃 사랑, 구제, 봉사, 선행, 목회, 선교, 교회 성장 같은 '돕는 쪽의 필요'에서 비롯하거니와 중심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나 기독교인에게 돕는 행위는 곧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사역이 되어 버리곤 합니다.

당사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당사자의 인격 자존심 체면 따위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기 믿음, 자기 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1)]

이런 까닭에서인지 교회의 구제 사역이나 기독교인의 봉사 행위가 '자기 의'는 세우는데 당사자의 인격은 오히려 해치는 일이 많습니다. 흔히 자기는 존귀하고 당사자는 비천합니다. 자기는 강하고 당사자는 약합니다. 이웃 사랑 설교에도 그 이웃을 밑으로 보는 듯한 표현, 불쌍한 사람 따위로 구차하게 대상화하는 표현이 종종 있습니다.[2)]

---

1) 이웃을 위해 구제 봉사 선행 따위의 이웃 사랑이 필요하지만 교회나 기독교인의 이웃 사랑을 위해 이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참조 : 복지영성 '존중' | 복지야성 복지기계 편 '존재 모순'

2) 기독교 사회사업은 기독교 신앙으로 행하는 사회사업입니다. 사회사업가가 기독교 신앙으로 행하는 '일반 사회의 일'입니다. 사업의 기본 재원과 형식 내용이 일반 사회사업과 같습니다.

교회 사회사업은 교회가 하는 사회사업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교회의 것으로써 봉사하는 '교회의 일'입니다. 표방하는 목적과 기본 재원이 일반 사회사업과 다릅니다. 형식과 내용도 일반 사회사업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은 '일반 사회사업'입니다. 영혼 구원 또는 전도 목적을 공적으로 표방할 수 없습니다. 복지 당사자와 사회사업가에게 종교 행위를 요구하거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3. 강점

1) 문제 비우기

육체의 욕심은 지우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없애려 할수록 더 살아나곤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고 싸우기보다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갈5:16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1)]

문제를 비우면 다른 문제가 들어섭니다. 옛 문제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더 심해지거나 많아지기도 합니다.

마12:43~45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꾸만 문제를 보고 문제를 건드리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 이어 들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문제 비우기는 '모래 웅덩이에서 물 퍼내기'와 같습니다.

---

1)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애써 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4:6~7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2) 강점 채우기

고후12:7~10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약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 좋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삶의 목적, 이 강점을 살리면 약점도 기뻐할 수 있으니 내가 약한 그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나름이겠지만, 문제가 없어지면, 좋을까요?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가 있음에도 살아갈 만한 강점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을 만한 강점을 살리려 합니다.

문제를 꼭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다면, 문제까지 합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문제에 잘 대응한다 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강점

신20:1~4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왕하6:15~17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대하32:6~8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열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열 명은 문제를 보았고 문제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13:32~33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른 두 명은 강점을 보았고 강점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14:7~9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고후10:4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강점을 보니 문제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저쪽에 거인들과 여리고 성과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니 문제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과 같습니다. 시23:4

4)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왕하4:1~7 (과부의 기름과 아들, 이웃의 그릇)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5) 멸망 요인과 구원 요인

창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잠15:24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4. 위험한 수단

사30: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사31:1~3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1]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2]

---

1) 앗수르가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강한 기병과 많은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2) 외부 자원 찾아 헤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공모 사업을 의지하며 자원의 많음과 문서작업에 심히 통달함을 의지하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주체로 세우지 아니하나니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꾀가 있은즉 더욱 의존하려 들고 더욱 떠맡기려 들고 더욱 요구하려 들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들고일어나 자주성과 공생성을 해치는 자들의 집단을 치며 그 자금을 대 주는 정부와 물주들을 치리니, 외부 자원은 한 바가지 물이요 물의 원천이 아니며, 그 자원은 곧 없어질 것이요 항구한 자산이 아니라. 평지풍파 일어나 돕는 자도 시험 들고 도움을 받는 자도 시험 들어 다 함께 구차해지리라.

잠25:19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겔29:6~7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베푼 계략은 그 실상이나 결국이 이러합니다. 혹 눈앞의 곤경은 벗어날지라도 항구한 자산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애굽의 물 앗수르의 물은 복통과 질병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무릇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마실 물도 없거니와 이미 그 자체가 악이고 재앙입니다.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2:18~19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아니하고 복지기계에 의존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더 큰 고통을 낳는 일입니다.[1)]

---

1) 복지 자연력과 복지기계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또한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복지기계는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찔려 들어갑니다. 힘쓸수록 빠져드는 늪이고 죄어드는 족쇄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짠물입니다.

복지기계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복지병을 일으킵니다. 혼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고 평지풍파 일으키기 쉽습니다.[1)]

도울 수 있는 물질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 인맥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놓아두고 복지를 이루어 주는 수단이 복지기계입니다.

1) 복지기계로써 해 주다 보면

당사자는 주체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어나고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복지기계로써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굽실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주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5. 사회사업 공부

잠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롬10:2~3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기 의만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도 칭찬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의를 세우느라 당사자의 삶을 해치고 복지사업 실적을 높이느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허뭅니다.

이렇듯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사업가로서 합당치 않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머리도 발도 눈도 손도 모두 같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지체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각각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고전12:1~30

사회사업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행하는 성직입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하느라 사회사업을 부업처럼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교회 일로 바쁘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빈축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전공 활동은 소홀히 하는 학생, 민망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대학생 편 '실무 준비와 취업'

6. 인문학

인문학이 흔히 그러하듯 사회사업에서도 자주와 공생을 강조합니다. 다만 신자로서는 조심합니다.

1)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가 자기 복지의 주체로 행하게 돕자, 복지를 이루되 당사자가 이루는 당사자의 삶이 되게 하자 합니다.

신자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뜻대로 살기를 꺼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 제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1)]

2)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살려 돕자 합니다.

신자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계합니다.

---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으나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단4:17,35)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있습니다.(롬9:16)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약4:15)'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합니다.

최선의 자유 의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잠16:9)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기를 바라고(잠19:21)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고전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골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3) 인문 지성에 대한 경계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시2:2~3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1)]

시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2)]

골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3)]

마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

1)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인문 지성은 우리가 매이고 결박되었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전3:19~20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 고전1:22~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3) 사회사업에서의 인문학 활동

어설픈 활동으로 인문학을 오도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행처럼 일어났으니 그렇게 꺼질 것 같아 지레 부끄럽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문학 활동을 사업실적이나 명예나 이익의 재료로 치부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래저래 신중해집니다.

7. 안식일

창2:2~3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레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신5:12~14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58: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눅13:10~16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2)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7:23~24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3)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

마12:1~5, 7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4)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마12:9~13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막2:27~28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5) 사회사업가의 주일 근무

주일에 당번이 되었다면, 주일에 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찌할까요? 외모 곧 주일이라는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을 생각한다면…

주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함으로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아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한두 번 말씀드려 보고 뜻을 이룰 수 없으면 조용히 다른 직장을 찾아봅니다. 떠나더라도 원수 같이 생각하지 말고 친정 같이 여깁니다. 떠나서도 험담하지 말고,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하며 감사합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1)]

---

1) 딛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살후3:14~15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8. 동역

전4:9~12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18:19~20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모세

출18:24~26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1]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민11:14~17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

---

1) 모세가 홀로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으니, 모세도 백성도 힘들겠는지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 바울

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하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바울, 도움이 필요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 주어 풍족하다 합니다.[1)]

빌4:13~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2)]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외우다가 어느 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동역'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도울 여지가 있겠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와 동역하셨습니다.

---

1) 빌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쓸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3) 중보 기도

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50, 45, 40, 30, 20, 10 의인 십 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여러 차례 감히 말을 바꿔 가며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창세기 18~19장

②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퍼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롬9:3

③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④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이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 내니 쇠사슬이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려 성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행12:5~12

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34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⑥ 바울

바울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후1: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엡6:19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4:3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살전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살후3:1~2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⑦ 다니엘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니,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단2:16~18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에게 나아가 알려 드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높이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천거했고,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⑧ 여호사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오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하20:1~4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하20:21~23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4) 동역자를 모을 때

신20:2~9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다른 일과 이 일 사이에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 열정이 없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돌려보냄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 잘해 보려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 온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함이 좋겠습니다.[1)]

---

1) 조심 :

마13:29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9. 동료

사귀는 사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 동료를 가려 사귑니다. 단, 외모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했습니다. 잠31:30

1) 지혜와 지식, 지지와 격려, 인정과 비판, 자극과 도전으로써 사회사업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합니다.

잠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27:5~6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 해가 될 사람을 멀리합니다.

잠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29: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고전15:33 속지 말라.[1]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역대하 17장)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고 전쟁에서 그를 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역대하 18장)

대하19: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또한 심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하20:35~37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

1) 시55:12~14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회사업가로서 자주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실력과 덕을 쌓는 데는 게으르면서 자기 몫 챙기는 데는 빠른 사람, 불의한 사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잠22:24~25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23:20~21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4:1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28:7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고후 6:14~17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회사업가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전5:9~11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특히 먹고 마시는 자리를 잘 가립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베풀 때는 더욱 조심합니다.

잠23:1~2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23:6~8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1)]

---

1) 집회서 31:12~20 성찬을 차린 식탁에 앉았을 때, 입을 딱 벌리고, '야, 굉장하구나.'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걸들린 눈초리는 상스럽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 만물 중에서 눈보다 더 죄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린다.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음식에 먼저 손을 내밀지 말고 그가 집는 음식을 다투어 집으려 하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여라. 네 앞에 놓인 것만 점잖게 먹어라. 게걸스럽게 먹으면 남의 빈축을 산다. 예의바르게 먼저 숟가락을 놓아라. 포식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여럿이 식사할 때에는 남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말아라. 점잖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때에 숨이 가쁘지 않다. 절제 있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다. 포식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면과 구토와 복통뿐이다.

집회서 37:29~30 맛있는 음식이라고 걸신들려 먹지 말고, 음식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과식하면 병이 나게 마련이고 포식을 하면 복통을 앓게 마련이다.

잠25: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0. 어른을 책망할 때

출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민12:1~10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삼상26:9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전10: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행23:1~5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롬9:10~20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

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엡6:5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골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딤전2:1~2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전6:1~2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벧전2:13~14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이라도 비판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조심스럽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을지, 결국이 어떠할지, 헤아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1)]

그래도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태도와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문제의 본질은 묻혀 버리고 그 태도나 말투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딤전5:1~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

1) 마18: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26: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1. 아이를 책망할 때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기죽이지 않습니다. 격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개심 복수심 한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엡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3:21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12. 남이 욕할 때

1)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잠26: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애3:37~38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욥1:6~12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1)]

---

1) 왕상22:19~23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2)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신23:4~5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벼슬과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집요하게 회유했습니다. 발람이 마침내 발락에게 갔습니다.(민수기 22장)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23:8,20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민24:13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3) 저주하게 둡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셨고, 저주까지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잠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 시무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아비새가 가서 그 목을 치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했습니다. 삼하16:5~13

13. 역설

전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7:15~18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12:12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소원

언제든지 툴툴 털고 일어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과 해맑은 웃음으로
때 묻고 코 묻어도 마냥 좋은 털털이이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달게 잠으로 행복해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있음으로 족한 줄 아는 빈자이고 싶습니다.

떼어 주고 뽑아 주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섬기기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머슴이고 싶습니다.

유언

부고와 장례식을 하지 마십시오.

장기와 시신은 약속한 곳에 기증하고 1588-1589
사람에게 쓸모없으면 무덤 묘비 흔적 없이 흙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유품은 필요한 곳에 주거나 없애 주십시오.

자녀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지내며 선한 일에 힘쓰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좋은 복이니,
무엇보다 이 복을 누리며 살자.

인생

※ 여기에 인용한 성경말씀의 적용에 대하여 1)

이것은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입니다.

복지인의 꿈, 복지인의 길, 복지인의 삶을 세우기 전에 먼저 쌓아야 할 초석입니다.

확고한 자아정체성과 인생관에 기초한 인생 설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연히 자기의 길을 갈 것입니다.

---

1) 여기에 인용한 성경구절을 모두 저에게 직접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특별한 대상, 즉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 여호수아, 다윗,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초대교회 등 특정인에게 하신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며, 같은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에게 적용하여 받아들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적용의 타당성을 놓고 볼 때는 적용의 비약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분이 어떠한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는 취지에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교시절에 성경말씀과 기도를 통해 형성된 자아정체성, 인생관에 기초하여 복지인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인생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알았습니다. 도우며 섬기는 삶, 욕심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겠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길에 도우며 섬기는 삶을 소망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결단, 헌신하도록 성경의 약속들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제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 그러므로 뜻 있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1.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1)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창3:1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103:13-14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2)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대상29:1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벧전2: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창47: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年祚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히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벧전 1: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3)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요 풀이요 바람입니다.

약4: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90:10,12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計數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103:15-16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사40:6-7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시78:38-39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시므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 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1)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시144:3-4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8:3-4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습3:17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2)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가 된 존재입니다.

시71:6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139:13-14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44:2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 낸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3)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23:1-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95:7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요10:14-15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4)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존재입니다.

신32:9-10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시139:1-5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마10:29-31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시118:6-7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5)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사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벧전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14:2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6)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지체, 보배 그릇입니다.

고전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후6:16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전6:15-20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후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갈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신분입니다. 재벌이나 대통령의 아들딸이라도 부럽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시18:1-2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사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3. 그러므로 뜻 있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하셨는데(잠 16:4), 나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일까? 푯대를 향하여 좇아가고 향방을 두고 달음질해야 할 텐데 내 인생의 푯대는 무엇이며 향방은 어디인가? 뜻 있게 살고 싶습니다.

사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43:7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엡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14:7-8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후5: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전6:19-20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빌2:13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 도우며 섬기는 삶, 복지인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뜻 있게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찾았습니다.

복지인의 길, 복지인의 삶을.

구원에 관한 믿음[1)]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거나 때때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②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 몰라서
③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④ 죄를 지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⑤ 구원과 상급, 혹은 관계와 교제를 혼동하기 때문에
⑥ 거듭날 때 특별한 체험이나 변화가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

1) 학생 때 성경공부하며 정리해두었던 것을 2001년에 다듬어 썼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자주 듣고 배우되 성경을 상고하여 나름대로의 구원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글은 구원에 대하여 배우고 상고한 성경말씀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도 및 양육 교재도 참고하였으나 주로 성경으로써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관주를 따라 관련 구절들을 고찰하고 여러 번역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64년 大韓聖書公會 發行 簡易國漢文 貫珠 聖經全書와 NIV성경을 위주로 인용하였고, 다른 번역본은 따로 밝혔습니다.

오래 전에 썼던 글이라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때때로 불안하거나 신앙의 초보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 중에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닦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5:12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 6:1-2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1.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요일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일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마치 진주조개를 얻은 사람이 진주를 소유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1)]

요6:47-50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

1) 이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일 5:10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증거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열고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며,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하게 보장되었습니다.

히13: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인용한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수1:5-6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장래를 위하여 돈을 모으려 하는 사람에게,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터이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누구에게나" 유효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하셨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는 생명을 영원히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요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진실로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시 사망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히10:10-14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1]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9:25-26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

1) 히7:23-25,27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7.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을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합니다.

히10:15-18 15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저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이미 다 용서하셨으므로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로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좌를 취하여 주시기를 이제 다시 한 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2]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리심

---

1)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새번역

2) 엡5:18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요일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라는 C.C.C. 소책자에서 가르치는 영혼의 호흡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숨을 내쉬고, 성령충만을 구하는 것으로 숨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서는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뿐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히10:29)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10:28-29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면서 언제까지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보장하셨습니다.

요일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치 않아야겠지만, 만일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代言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1)]

그러므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롬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Nothing !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

---

1)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결코 끊어지거나 변할 수 없는 관계, 즉 자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부모자식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탕자일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문 열어 놓고 기다렸고 돌아왔을 때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맞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막힐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는 변치 않으며, 우리가 쌓은 공력功力에 따라 상급은 달라져도 구원 그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사59:1-2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시51:9-12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말씀과 같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 된 관계가 끊어지거나 영생이 중단되고 구원이 취소될까요?

고전 3:12-15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경건하게 살며 주님의 일을 하며 선행을 쌓으면, 그 쌓은 공력대로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행실에 따라 구원 여부가 수시로 변한다면,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많은 공력을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롬 7:14-25... 19.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3.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7.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신에 속하면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며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곤 합니다. 참으로 곤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비록 성령께서 근심하실지라도 여전히 구속의 날까지 인을 치사 보증하셨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엡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엡1:13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3. 제가 듣고 배운 바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나는 죄인이라는 것, 죽은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죄인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전7:20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셨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하셨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일지라도 죄인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고 양심에 자책할 것이 없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약2:10-11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잠21: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64:6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렘17:9-10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고전4: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욥9:15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2)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롬6:23 죄의 삯은 사망[1]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롬5:12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2],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

1) 여기에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심판 때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가리켜 육체적인 사망,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2) 엡 2: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3)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일4:9-10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고전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4: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롬4:4~8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갈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

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셨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우리도 경건하게 살면서 선행을 쌓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대속으로 충분하고 완전하여, 사람이 어떤 대가도 더 치를 필요가 없고 또 자신의 노력을 보태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 되게 하여 사람으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셨으므로, 또한 율법의 행위로써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으므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결코 쉽거나 값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갈 3:13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찔리고 상하셨으며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사 53:5 결코 값싼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모욕, 침 뱉음을 받으며 가시에 머리가 찢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린 채로 목마르다 하시고, 허리에 창구멍이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실로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무엇인가 자신의 행위를 더 보태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4.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 하셨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요6:47, 여기에서 영생의 조건인 "믿는다는 것"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을 좀더 구체화시킨 표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요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일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롬10:9-10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10:13-1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1)]

이 구절에서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들어야 믿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믿어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일까요?

눅23:39-43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

1) 롬10:17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 편에 다른 두 행악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뒤에 말한 행악자는 어떤 사실을 듣고 믿었습니까? 예수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과, 천국이 예수님의 나라이며 예수께서 천국의 주권 즉 천국에 들어오게 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쳤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 의뢰하였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 주인공은 예수님에 대하여 ①들었고 그가 구원하실 분이심을 ②믿었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③의탁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1)]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복음을 ①듣고, ②믿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③의탁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1) 약 2: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막 5:7 (군대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눅 4:33-34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지만 구원해달라고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그분께 의탁하였습니다.[1]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약속하신 성경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

1) 한국대학생선교회의 한글 「사영리」에 나오는 영접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접하기 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구원얻기 위하여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CCC 훈련을 받으면서도 이 기도를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 저에게 영생이 있음을 압니다.

요일5:11-13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 글을 쓴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후13:5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벧전3:15-16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영생을 가졌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일4:15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고전12:3의 말씀처

럼,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구주시라고 말할 수 있기에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확신합니다. 제게 만약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저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테니까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극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어떻게 자신의 삶이 달라졌는지를 고백하는 간증이나, 회개할 때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나도 정말 거듭났다면 저런 변화나 체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요. 부정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경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근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경말씀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구원의 확신에 관한 논리'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 심판과 구원의 문제'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절대 예정론, 절대 선택론이 구원의 확신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정설과 선택설에 대하여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만세 전에 예정하셨고 그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1]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

1) 전 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였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과 구원을 확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확신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사회사업을 하고 있어서 현재의 실용성을 중시한 탓인지 아니면 나그네 인생관 탓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옛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받은 C.C.C.교육을 통해 구원과 성경말씀에 관해 지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과 구원에 대해 주일학교 가르침을 통해 잘 배웠으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순수하게 저 개인에게 적용하여 생각해 볼 때, 가장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확신의 근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의 확신에 이른 것도,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전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 8:17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롬 11: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요 9:25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는 전에 제가 앞을 보지 못했으나 이제는 본다는 사실입니다.” 쉬운성경

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마16:16-1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요일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3:24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므로,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을 수는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구원을 확신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요16:13-14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혹은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내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6.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나요?

복음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롬10:13-1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구절에서는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전1: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행17:30-31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롬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15: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으므로 굳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인, 전도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려 했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

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 지은 죄는 간과하시고 허물치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롬1:18-20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행14:16-17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위 말씀들에 의하면 사람이 몰라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은 정죄받을까요, 용서받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찌 되었을까요?

히11:13-16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11:39-40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옛 사람들은 약

속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옛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어떤 대안을 예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심판을 받을까요?[1)]

벧전4:5-6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벧전3:18-20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말씀들에 의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으로써 복음을 전하신다는 뜻입니까?

요21:21-22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구약시대의 사람들,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어찌 하실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롬9:13-2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

---

1) 생각해 볼 말씀

요4:26~29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신29:29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전3:14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관한 비밀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상관치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인생칼럼

제8차 복지순례를 앞두고, 참가자들에게 요구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제시한 주제들은, 복지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근본 문제, 정리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는 문제입니다. 2005. 12. 13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있는 것들, 나의 상황과 조건들의 의미를 재구성해 보자. 싫던 일도, 밉던 사람도, 고난도, 약점도 긍정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자.

강점 관점으로 바라보자. 방법론적 사고로 다시 보자.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긍정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그것을 희석시켜 버리자. 부정적 요소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틀, 관점을 바꾸어서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 보자. 다르게 보자.

내 안의 요소에 주목하자. 내 삶의 주체성을 회복하자. 이룬 것이 있다면 내 안의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찾아보자. 외부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더라도 내 안의 요인 또한 작용하지 않았으랴? 내가 어떻게 대응·적응했는지 반성하되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정하고 칭찬하고 감사하자.

만약 ~ 했더라면, 만약 ~ 이라면, 만약 ~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 이 아니라면, 만약 이러저러한 조건이라면.. 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조건부적 사고를 버리자.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도모하는 방법론적 사고로 보자.

누가 무엇을 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자. 남의 변화와 책임을 구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꾸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에게서 책임과 방법을 찾아보자.

변화가 있었다면, 좋은 일이 있었다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했기에 그렇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나 자신을 칭찬해 보자.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받았는지 누가 도와주었는지 생각하고 감사하자.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것을 생각하자.

변화를 꿈꾼다면, 좋은 일이 생기기 바란다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그것을 위해 내가 다룰 수 있는 내 안의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스스로 격려해 보자.

내 안의 요인과 밖의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내 안의 요인, 내 강점, 주체성을 더 생각해 보자.

미래 또한 긍정적으로 보자. 불길한 시나리오, 비현실적 염려를 버리자. 마음먹는 대로 다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갖자. 희망을 갖자. 꿈을 꾸자.

인생칼럼 ~

긍정적 관점, 강점 관점, 자신을 격려하는 관점으로 써 보자. 용서하자, 칭찬하자, 감사하고 감사하자.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이룬 것을 감사하자.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하자. 부끄러운 실수도 쓰라린 실패도 시련도 악조건도 감사하자.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자.

※ 크리스천이라면,

나의 주체성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자. 내가 어떻게 되어 보려는 생각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자. 내 강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자.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긍하지 말자. 자신을 높이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인생칼럼, 믿음의 관점에서 쓰되, 하나님의 역사役事에 사람이 믿음과 수고를 화합하면 유익이 되리라.

골1:29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와 같이 우리도 수고하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맡기는 믿음의 관점을 지니되, 내가 감당해야 할 수고, 책임, 선한 근심, 자유의지… 내 안의 이러한 요소도 무시하지 말자.

내게 있는 열정, 능력, 자원, 강점, 기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맡기신 은사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선한 청지기처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면 좋을지 생각하자.

인생칼럼~ 믿음의 관점을 지니되, 앞에서 설명한 강점관점, 긍정적 관점, 주체성의 관점에서 써 보자.

인생칼럼 1

나의 강점 – 능력, 자원, 기회, 가능성, 성공경험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려 쓰고 강화해야 할 자신의 장점과 밑천들을
최대한 많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 보라.

능력, 자원, 기회, 가능성 :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리고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성공 경험 :

만족스럽게 잘 해낸 일,
능력이 잘 발휘된 일,
자원을 잘 활용한 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경험,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는 경험.

자신의 강점이 잘 드러난 경험 사례를 들어 쓰면 더욱 좋다.

인생칼럼 2

나의 재산 – 고난, 약함, 실패경험, 악조건

역경 중에 거할 때는 모든 것이 침이요 약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조와 행실을 갈고 닦게 되거니와, 순경에 처하면 모든 것이 칼과 창이라, 살이 없어지고 뼈가 닳아져도 알지 못하느니라. 菜根譚

역경과 가난은 호걸을 단련하는 불과 망치이니, 단련을 받으면 몸과 마음에 유익하지만, 받아내지 못하면 몸과 마음에 모두 손해니라. 菜根譚

약점弱點은 곧 약점藥點이다. 악惡조건이 곧 악樂조건이다. 고난은 몸에 좋은 약이다.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사람을 만든다.

쓰라린 실패도, 크고 작은 실수도 경험한 사람만의 재산이다. 강점이다. 약한 데서 강해지는 능력이 있다.

내게 오히려 고마운 실패 경험, 약점, 악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

나의 약점, 악조건, 부족한 점, 실패 경험들을 긍정적 의미로 재구성해 보자. 재해석하여 긍정적 용어로 다시 써 보자.

받아들이는 사람의 관점·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약점, 악조건, 실패의 의미를 다른 관점·틀에서 보자는 것이다.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인생칼럼 3

인생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밑그림이다.
복지인의 꿈, 복지인의 길, 복지인의 삶을 세우기 전에 먼저 놓아야 할 초석이다.

확고한 인생관과 자기 정체성에 기초한 인생 설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꿈과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도,
인생의 근본 물음 앞에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고
생을 설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의연히 자기의 길을 갈 것이다.

인생칼럼 4

행복론

행복에 대해서 논하라, 혹은 행복을 논하라

행복이란 무엇일까? 어떤 경우에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그 조건이 충족되면 계속 행복할까? 얼마나 지속될까? 불행하게 만드는 조건은 무엇일까? 그런 상황이면 반드시 불행할까?

사람들은 흔히 무엇이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사업 관점에서는 행복의 조건, 혹은 행복 그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행복은 좋은 것이고 불행은 나쁜 것인가?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행복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인가? 행복이 행위의 기준인가?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가?
행복이라는 게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른 질문으로 바꾸어 논술해도 좋다. 행복 관련 주제이면 어떤 것도 좋다. 행복이 아니라, 복福을 소재로 해도 좋다. 행복~ 관심이 없거나 쓰고 싶지 않으면 안 써도 된다.

인생칼럼 5

나의 꿈 : 20대, 30대, 40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그려 보자. 단지 희망사항이라도 좋다. 꿈꾸는 건 자유 아닌가? 연령에 따라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구체적으로 그려 보면 좋겠다. 10년 단위가 아니라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도 좋다.

결혼 전, 결혼 후 자녀를 키우는 동안, 혹은 자녀가 중학교 가기 전후로 나누어도 좋다. 농촌사회사업의 경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자녀가 독립한 후, 퇴직 후… 이렇게 나누어 그려 보아도 좋다. 나누지 않고, 인생을 통째로 하여 그려 보아도 좋다.

사회사업을 꿈꾸게 된 것이 언제인가? 어떤 계기가 있었는가? 특별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가? 어떻게 표현해 보았는가? 누구랑 이야기해 보았는가? 내 꿈에 긍정적 반응을 보여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그 때의 꿈은 어떤 것이었는가? 최대한 자세히 써 보자.

만약 그 때의 꿈이 지금과 다르다면 왜 달라졌는가 생각해 보자. 여러 번 바뀌었다면 어떤 계기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써 보자.

특별히, 내 꿈을 강화해 주었거나 믿음을 갖게 해 주었거나 수정 보완하게 해 준 선한 영향을 기억하는가? 어떤 것인가 혹은 누구인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꿈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꿈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인생칼럼 6

즐거웠던 일, 樂,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자.
기준은 없다. 무엇이든 좋다.
나름대로 영역, 종류, 기준을 정해서 생각해 보자.
그것을 왜 좋아하는지, 어떻게 좋아하는지…
할 수 있다면 설명도 써 보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공통된 속성이 있는가?
공통분모가 있는가?

혹 싫어하는 것 중에
내 하기에 따라 좋아질 만한 것도 있는가?
내가 마음을 바꾸거나 행동을 바꾸면 싫던 것이 좋아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즐거움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의 낙樂인가?
살아오는 동안, 내가 생각하는 즐거움樂에 변화가 있었는가?
왜 달라졌는가?
어떻게 변했는가?

즐거웠던 일들을 생각해 보자.
공통적 혹은 특징적인 요인이 있는가?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일 때, 혹은 내가 어떻게 할 때 즐거웠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혹은 내가 하기에 따라서 즐거워질 수 있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워지겠는가?

궁하면 궁한 대로 궁한 것을 즐기고,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또한 그 형통함을 즐기나니
궁해도 좋고 통해도 좋으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슬픔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고통과 쓸쓸함 속에 깊은 맛이 있나니 가난한 마음으로 이들을 벗하며 즐겨보자. 시련을 만날 때, 궁할 때, 불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라.' 아닌가?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자주 보고 들으면서도
나는 내 인생을 즐길 수 있는가?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한가?

인생칼럼 7

내 인생의 전환점

큰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변화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이나 책이 있었는가?

그 변화에 나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친 내 안의 요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외부의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했는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변화를 도모하거나
혹은 변화를 받아들였는가?

스스로 변화를 위해 노력했는가?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성품이 있었는가?

내 인생 언제쯤 또 획기적 전환점, 변곡점이 되리라 예상하는가?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혹은 희망하는가?
그 변화가 의도적이라면, 그 변화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려는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어려우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답을 해 보라.
이 칼럼 주제가 어려우면 일단 다른 주제로 넘어가라.

인생칼럼 8

~을 다시 한다면, ~로 돌아간다면…

마치 바둑에서 한 수 물리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한 수 물리고 싶은 일들을 떠올려 보자. 한 수 물려 주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 때 상황을 재현해 보자. 그리고 지금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나리오를 써 보자.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와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했더라면…
아차, 그 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 보자.

다시 할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역사에 "만약 그 때 …" 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자.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앞으로 언젠가 유사한 상황에 봉착할 때, 대처할 지혜를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칼럼 9

소망 :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최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자. 그 시나리오대로 되었을 때, 그 후 내 인생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려 보자.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시나리오처럼 될까…
무엇을 하면 될까? 인생 극본을 써 보자.

인생칼럼 10

내가 깊이 고민했던 일, 지금 보니 이렇더라

그 때 그게 무슨 심각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렇게 아옹다옹했는데,
그렇게 고집했는데,
그렇게 슬퍼했는데,
그렇게 좌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구나.

그 때 내가 이런 지혜와 이런 지식을 가졌더라면,
여차여차 했을 것 같다.

그런 일들을 찾아보자.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때,
더 넉넉하게, 유연하게, 대범하게 다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눈으로,
지난날의 고민을 관조해 보자.

인생칼럼 11

내 언어, 행동, 품성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목표를 세워보자. 좋게 변화된 모습을 상상해 보자.

특별히 이번 순례를 통해, 내 언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내 행동의 이런 점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습관이 생기면 좋겠다. 이런 버릇이 고쳐지면 좋겠다…

복지소학을 읽으면 도움이 되리라.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내가 노력해야 할 바를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들로 작게 나누어 보자.

이런 품성을 갖고 싶다.
너그러워지고 싶다. 온유해지고 싶다…

앞으로 1년 동안 단계적으로 고쳐 가겠다. 반복하여 훈련하겠다.
순례 후, 1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자꾸만 그려 보자.

큰 바위 얼굴 보듯, 자꾸 바라보자.
인자한 표정, 부드러운 음성, 너그러운 마음, 단정한 자세…

그렇게 된 것처럼 상상하며
그렇게 될 내 모습을 기대하며
그렇게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 보자.

그러니,
그림이 있어야겠다. 목표가 있어야겠다.
그림을 그려 보자.

인생칼럼 12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쓰겠다.

다른 주제와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기도 하다.
다른 주제에서 충분히 썼다면 이 주제는 생략해도 좋다.

다시 보니 어떤 주제들은 비슷하다.
인생의 결산 평가, 인생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소망…

조금씩 다르긴 하다.
비슷한 주제라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다른 질문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렵다면, 명확하고 쓸 말이 많은 주제부터 다루어라.
통폐합하여 써도 좋고, 같은 것이라도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답변해 보는 것도 좋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20대에 꼭 한번쯤 써봐야 할 주제들을 더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살아오면서 복지인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제들을…

인생칼럼 13

내 인생의 중간 평가와 희망 결산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며 중간 결산을 해 보자. 평가항목을 나름대로 정하여 결산해 보자. 예를 들어,

1. 신앙 : / 2. 교우 : 벗을 사귐 / 3. 학문 : / 4. 사친 : 부모를 섬김
5. 건강관리 : / 6. 독서 :
7. 추억 : 인생의 단계마다 누려야 할 몫을 얼마나 누려왔는가? 놀이, 여행, 이성교제 포함 어떻게 즐기고 누렸으며 어떤 추억이 있는가?
이것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저축이요 투자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 이 아름다운 추억으로써 다시 힘을 내고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음덕陰德, 봉사 :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을 나열하고, 인생의 단계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혹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얼마나 쌓아왔는지 결산해 보자.

덕을 얼마나 쌓았는지 (구제, 봉사, 수양) 벗을 사귐은 어떠했는지, 인생을 얼마나 즐기고 누렸는지, 신앙은 얼마나 자랐는지, 인내와 연단을 이루었는지, 상급을 준비했는지, 책은 얼마나 읽었는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지식이 쌓였는지,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이렇게 인생의 중간 결산을 해 보자.

그리고,
죽을 때 내 인생의 결산서에 어떻게 쓰이기를 바라는지,
나름대로 항목을 정하여 예상 평가 혹은 희망 평가를 해 보자.

인생칼럼 14

나의 유언

예 : 복지영성 낙수 – 유언

인생칼럼 15

물질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나중에라도 설명을 쓰겠다. 예: 복지영성 물질관

인생칼럼 16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일, 행하실 일

이 항목은 크리스천이 아니면 안 써도 된다.

시편의 찬미와 감사송이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게 찬미이고 감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말하고, 읊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큰 힘이 되리라.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생길 것이다.

인생칼럼 17

고마운 사람들, 감사의 글

살아오는 동안,
알게 모르게 은혜를 입은
고마운 사람이 어디 한둘이랴.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쯤 생각해 보자.
고마운 분들을 떠올려 보자.

보내지 않을 편지일망정 감사의 글을 써 보자.
집단으로 말고, 한 분 한 분…

꼬리말처럼, 간단히 한두 줄씩만 써도 얼마나 좋으랴.

살아오면서
아~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다, 힘들다…

혹 나에게 이런 사람 있는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해 보자.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글,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글을 써 보자. 가명 혹은 익명으로

돌이켜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 ~ 고마운 사람이더라.

인생칼럼 18

닮고 싶은 분, 닮고 싶은 점

큰 바위 얼굴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좋은 사람의 좋은 모습을 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와 같이 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닮고 싶은 분의 닮고 싶은 점을 구체적으로 그려 보아요.

저는 대학시절 전국 일주하다가 오죽헌에 갔는데, 거기에서 율곡 선생의 책 격몽요결을 만났습니다.

격몽요결에서 율곡 선생을 눈으로 뵙는 듯했습니다. 책 읽는 모습을 보는 듯했고, 구용에 묘사된 그분의 눈, 얼굴, 손, 발, 위의까지 생생하게 보는 듯했습니다.

책 앞쪽에 그분의 초상화가 실려 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뵙는 선생의 표정을 그렇게 닮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책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과 몸가짐을 정제했을 때라야 얻을 수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죽헌 사당에도 같은 초상화가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초상화와, 글 속에 묘사된 마음가짐, 용모 하나하나 실감나게 다가왔습니다.

한동안 제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보였습니다. 짐짓 얼굴을 꾸며서 나올 수 있는 표정이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나오는 표정입니다. 기뻤습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책을 읽지 않을 때이거나 속 사람을 단장하지 않을 때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율곡 선생을 닮고 싶습니다. 그분의 언행심사와 용모를 모두 닮고 싶습니다. 다시 격몽요결을 보며 그분을 제 마음 속에 형상화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어떤 점을 닮고 싶습니까?

인생칼럼 19

결혼관 : 이런 사람을 사귀고 싶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성 친구로서 이런 사람을 사귀고 싶다.
배우자감 – 이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내 짝이 되기 위한 조건, 자격, 속성들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나열해 보자. 필수조건과 희망사항으로 분류해 보자.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감인지 생각해 보자.
나의 어떤 점이 그런 배우자에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가?

내 성품, 능력, 형편, 직업, 지식, 외모, 성격 등은 어떤 상대방에게 잘 어울릴까?

나에게 잘 어울리는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원하는 배우자와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만약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象과, 내가 잘 어울리는 배우자상이 다르다면, 그렇다면 내 분수에 맞는 배우자상을 써 보자.

결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자세히 써 보자.

결혼하면, 내 짝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결혼하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결혼생활을 잘하기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나열해 보자.

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써 보자.

인생칼럼 20

사회사업을 선택한 동기,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동기

사회복지를 전공이나 직업으로 하는 동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다.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은 종교적 신념, 적성, 가정환경, 주위 사람의 권유, 특별한 사건이나 체험이 동기가 되어 선택하는 것 같다. 그저 좋을 것 같아서 혹은 성적이 적당해서 사회사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특별한 동기가 없는 사람도 있다.

동기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생각은 해 봤지만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을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꼭 동기가 있어야만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없거나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혹은 귀찮아서 말하기를 꺼릴 수도 있다.

그래도, 이쯤 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내가 사회사업을 전공 혹은 직업으로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 사회사업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준 사람, 혹은 계기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무엇이 혹은 누가 나를 사회사업으로 이끌었는가?

지금 내가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처음 생각과 같은가?
달라졌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회사업(공부)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엇이 나로 이 일을 계속 하게 하는가?